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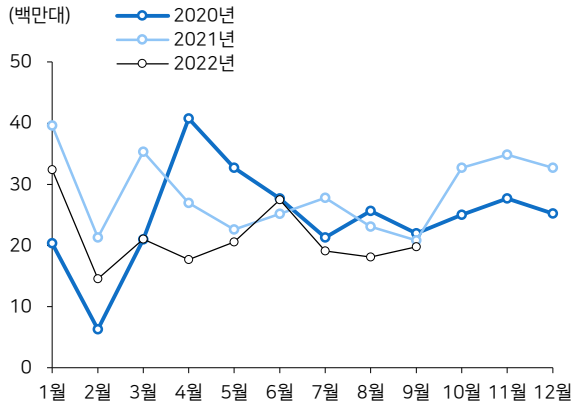
전기전자

중국 9월 스마트폰 출하량 코멘트

●
전기전자/IT부품장비
Analyst 양승수
02. 6454-4875
seungsoo.yang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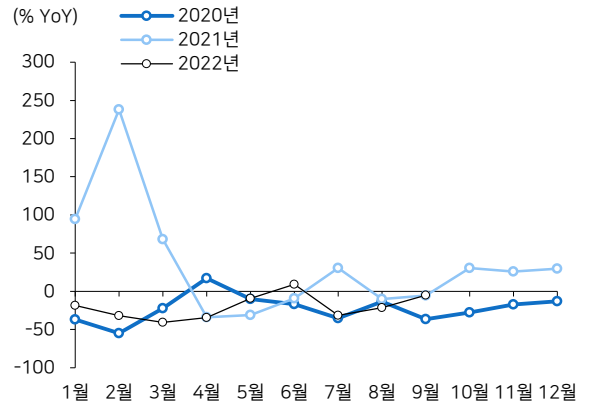
- 중국 9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,984만대(+9.2% MoM, -4.6% YoY)를 기록하며 3달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 기록. 중국 내 스마트폰 교체주기 장기화, 재고 조정, 도시 봉쇄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지속.
- 다만 전년 대비 일주일 빠르게 출시한 아이폰 14 효과(아이폰14 9월 16일 출시 vs 아이폰 13 9월 23일 출시)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 축소, 전월 대비로는 증가. 관련해서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-Local 핸드셋 출하량은 259만대(+129.7% MoM, +127.4% YoY), 점유율 기준 12.4% 기록
- 아이폰14의 경우 공급 문제가 발생하기 전 중국 내 판매량이 아이폰13의 동기간 판매량을 앞서는 것으로 파악됨. 이로 인해 10월 중국 Non-Local 출하량은 Apple 위주로 큰 폭의 반등을 예상하나 공급 문제가 발생한 11월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
- Apple을 제외한 Local 브랜드의 핸드셋 출하량은 1,833만대(+2.6% MoM, -9.7% YoY) 기록. 아이폰14 출시에 맞춰 중국 내 메이저 기업인 비보, 화웨이, 모토롤라 등의 신작 출시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.
- 5G 단말기 출하량은 1,510만대(+5.7% MoM, -0.1% YoY) 기록. 전체 모바일 폰 중 5G의 비중은 72.2%로 7월 이후 급격한 5G의 비중 감소 지속
- 9월에 출시된 스마트폰 신모델은 28개로 전월 43개 대비 큰 폭으로 감소 5G 신모델은 15개로 전체 스마트폰 신모델의 44% 차지
- 3Q22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5,704만대로 전분기대비 13.2%, 전년대비 20.4% 감소. 지속적인 출하량 감소로 판매량 부진(3Q22 -12% YoY)에도 불구하고 채널재고의 소진이 발생 중인 상황. 판매량의 소폭 회복만으로도 재고는 정상 수준으로의 조정 복귀 가속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
- 관련해서 당사는 중국의 '23년 방향성 측면에서 소비가 낮은 기저 영향으로 투자, 수출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('23년 전망: 소비 6.6%, 투자 5.4%, 수출 1.2% YoY). 특히 경기의 흐름은 올해 락다운 충격이 컸던 2분기에 급등하면서 연중 경기고점을 기록할 전망.
- 매크로 환경의 회복 + 기저 효과가 더해지는 내년 2분기에는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량의 회복이 예상됨. 이로 인해 내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분기 이후 재고의 가파른 감소세 전환 → 출하량 정상화의 사이클을 예상
-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정상화에 따른 관련 업체들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내년 1분기에 선행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

그림1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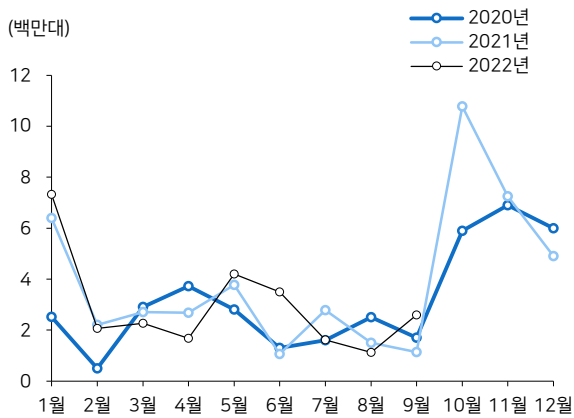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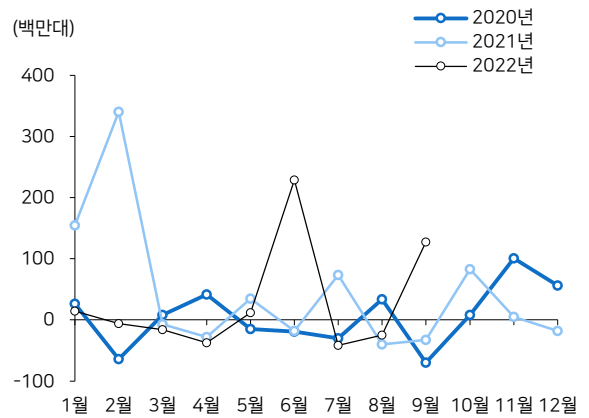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중국 Non-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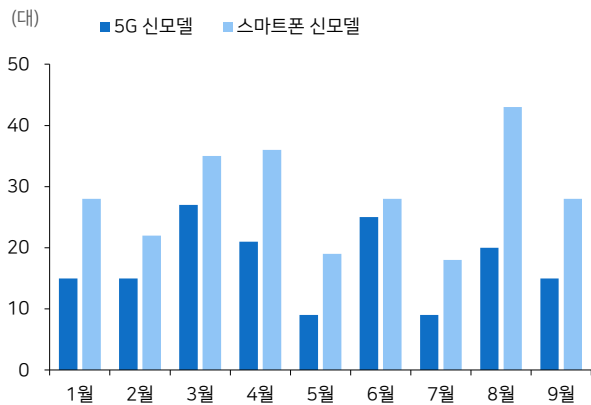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중국 Non-Local 브랜드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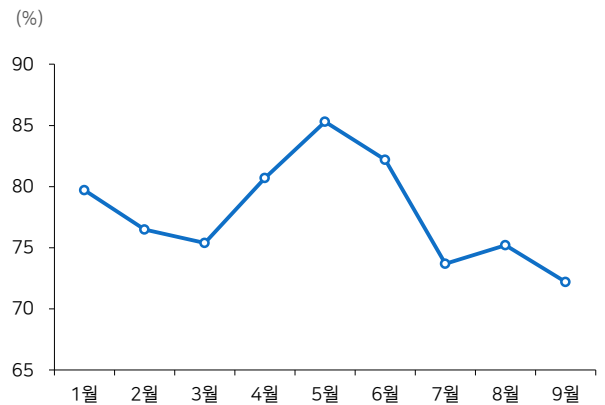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중국 내 신모델 출시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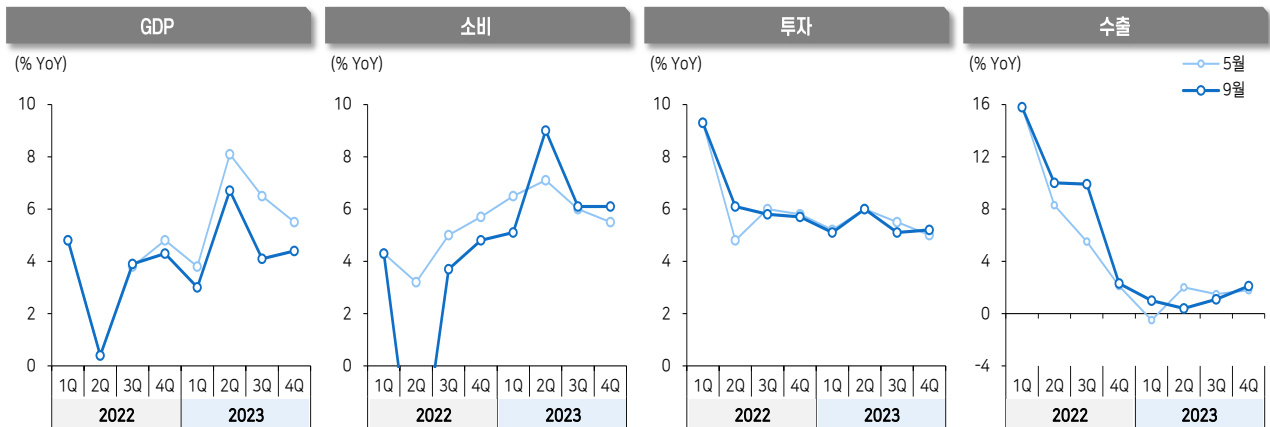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중국 모바일 폰 내 5G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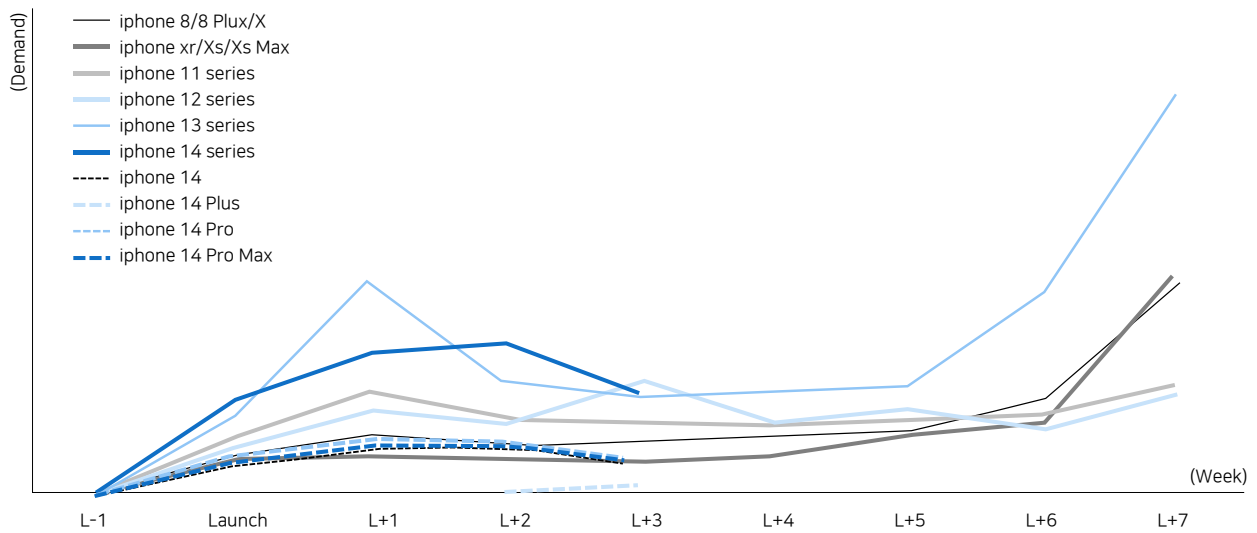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'23년까지의 중국 분기별 GDP 및 항목별 예상 경로: 내년은 기저효과로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



주: GDP는 메리츠증권 계산, 소비, 투자와 수출은 Bloomberg 컨센서스 이용
 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추이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